

[일본 환경규제 소식]

생물다양성 배려하는 기업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92년에 채택된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¹⁾에는 2008년 현재 190개국에 가입되었고, 매년 협약 체결국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일본 환경성, 「생물 다양성 기업 활동 가이드라인」 7월 발표

일본에서는 1995년에 정부가 「생물 다양성 국가전략」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2002년과 2007년에 전략 재검토를 거쳐 2007년에 확정된 제3차 국가전략에서는 과거 100년 동안 파괴된 국토의 생태계를 100년에 걸쳐서 회복하자는 「100년 계획」을 제시하고 지방과 민간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8년 6월에는 「생물 다양성 기본법」을 제정, 사업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야생생물의 적정한 보호, 외래생물의 영향 방지, 민간단체에 의한 자발적 활동 촉진, 전문가 육성 등 여러가지 규정을 정하였다.

하지만 기본법만으로는 일반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성에서는 기업의 생물 다양성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 기업 활동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2009년 7월에 발표하였다.

「생물 다양성 기업 활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① 이념

- 생물다양성의 보전 : 다양한 생태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물다양성 구성요소를 이용하도록 노력

② 활동방향

- 사업 활동과 생물다양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노력
- 생물다양성을 배려하는 사업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저감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노력
- 활동 추진체제를 정비하도록 노력

③ 기본원칙

-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 예방적인 활동과 순응적인 활동
-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

④ 고려해야 하는 점

- 지역을 중시하면서도 광역적이고 글로벌한 인식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계 및 배려
- 사회공헌
- 지구온난화대책 등 기타 환경대책과의 상관성
- 납품업체 고려

-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사업자의 특성·규모에 따른 활동

농약 사용 감소를 위해 노력 중인 패밀리 레스토랑 아레프

일본은 2010년 개최될 생물다양성조약 체결국 회의(COP10)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현재 정부 및 NPO가 다양한 PR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유럽에 비교하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체계적으로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식기업으로 드물게 다양한 생물다양성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레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레프는 300여개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1968년에 설립되었고 2008년 매출액은 380억 엔에 달하는 비상장 기업이다.

아레프는 비상장 기업인데 햄버거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삭감하기 위해 가공연료로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고 폐기물을 삭감하기 위한 환경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면서, 경제효율과 생산성 향상 만에 주력하는 다른 외식기업과 차별화된 「환경 공생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레프가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판

단하는 이유는 생물다양성 상실, 기후 변동, 유해물질 증가 등으로 식재료 공급이 감소하면 외식산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레프는 이러한 판단 하에 계약 생산농가와 협력해서 토마토 하우스생산에 사용하고 있었던 외래 곤충(2006년에 외래생물에 지정된 벌의 일종)의 사용을 중지하고, 인근 꽃밭 등에서 구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기타 계약 생산농가나 그룹회사 소유의 밭과 논에서 생물조사를 실시하여, 농약 사용을 중지한 경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고 관찰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 뿐 아니라 뉴질랜드, 중국에서 야생조류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멸종이 우려되는 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등 적극적인 생태계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 기업 활동 가이드라인」, 향후 강제화도 가능해

환경성이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기업에게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생물 다양성 관련 자주적인 실천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강제력 있는 규제는 아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생물 다양성 조약 체결국회의(COP10)가 일본 아이치현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좀 더 강제력이 높은 법안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상품 브랜드 이미지 개선, 새로운 시장 창출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업은 환경 관련 활동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금번 가이드라인 책정을 계기로 기업의 활발한 참가가 기대된다. 

지역 주민과 함께 실시하는 생물조사



사진 : 아레프

¹⁾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며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